



Market Index / 15일

코스피지수 ▲ 3258.63 +6.50	코스닥지수 ▼ 997.37 -0.04	유가(WTI, 달러) ▼ 70.88 -0.03	환율(원)	1USD 1136.54 100¥ 1032.42	살매 1097.46 팔매 996.92	1EUR 1381.88 1CNY 183.22	살매 1327.96 팔매 165.78
--------------------------	-------------------------	------------------------------	-------	------------------------------	-------------------------	-----------------------------	-------------------------

철근대란에 도내 건설업계 '초비상'

수요 증가에 중국산 수입까지 막혀 10여곳서 공사 중단
철근값 t당 150만원까지 치솟아 역대 최고...1년전 갑질
공사 늦어져 지체보상금에 공동주택 입주 지연 등 우려

철근 수급난에 가격이 사상 최고 수준으로 오르면서 제주지역 건설공사 현장이 멈춰서는가 하면 공사기간 지연으로 인한 파장도 만만찮을 것으로 예상되며 제주지역 건설업계에 비상이 걸렸다.

15일 대한건설협회 제주특별자치도회의 자체 실태조사 등에 따르면 철근 수급난에 공사가 중단되거나 착공 예정이던 건축물의 공기연장을 신청한 사업장이 10곳에 이른다. 사업장 8곳의 공사중지기간은 짧게는 10일에서, 길게는 3개월까지 있다. 이달 착공 예정이던 2개 사업장은 공기연장을 신청했다.

제주시 아라동 공동주택 신축공사는 공사중 철근 부족으로 공사가 지연되면서 공기연장을 신청했다. 대정읍 영어교육도시 내 근린생활시설과 단독주택 신축공사는 3개월, 서귀포시 소재 한 호텔신축공사는 1개월간 공사를 중지중인 상태다.

관급공사로는 서귀포시 대정읍 동일리에 추진중인 환경기초시설 설치 주변마을 저운저장고 지원사업이 일시 중단된 상태다. 제주국제공항 입구의 심각한 교통난 해소를 위해 제주시가 발주한 95m의 지하차도 공사 현장도 지난 5월 끝없는 철근을 제때 공급받지 못해 팔조공사가 한달 가까이 지연됐다 최근 재개되기도 했다.

건설현장 곳곳을 멈춰세운 철근

(SD400) 유통가격은 최근 t당 130만~150만원까지 치솟아 작년 이맘때(65만원 안팎)와 올해 초(75만원)보다 급격 올랐다. 국내 철근가격이 t당 100만원을 넘어선 것은 2008년 7월(108만원) 이후 13년만이다. 이 같은 상승세는 짐체됐던 건설경기가 회복돼 올해 초 관급공사를 중심으로 수주가 활기를 띠며 철근 수요가 늘었고, 중국이 해외로 수출하는 철강제품에 대한 수출환급세를 폐지하

는 수출 규제로 상대적으로 저렴한 중국산의 국내 유입이 막히면서 빚어진 현상이다.

도내 한 건설업체 관계자는 "철근난이 심각하다 보니 공사가 시급한 건설현장에선 아쩔 수 없이 t당 150만원까지 주고 구입하는 경우를 봤다"며 현장의 분위기를 전했다.

전국적인 철근 대란에 정부는 국토교통부를 중심으로 자체 수급안정 대책반을 꾸려 공공 발주공사에 대한 공사비 조정이나 공기연장 조치와 함께 민간공사 표준도급계약서에 기반한 공기연장 조치가 가능토록 관련 규정을 안내하고 있다. 하지만 민간공사의 경우 계약 후 자재가격이 오르더라도 발주자와 건설사간

설계변경(가격 조정)이 원만히 이뤄지기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게 현장의 목소리다.

도내 한 건설사 대표는 "설계변경의 여지가 있는 관급공사와 달리 민간공사의 경우 공사기간에 자재가격이 오르더라도 인상분을 공사비에 반영하는 설계변경이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라 결국 인상분은 건설사의 부담으로 돌아온다"고 말했다. 또 "자재난으로 공사가 지연될 경우 현장관리비 증가와 지체보상금 부담에 공동주택의 경우 입주를 기다리는 실수요자들의 민원까지 걱정이 한 두 가지가 아니다"며 정부의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문미숙기자 ms@ihalla.com



제주의 맛... 성게 15일 제주시 조천읍 함덕리 마을 해녀들이 갓 잡은 성게에서 알을 분리하고 있다.

강희만기자

제주 특산물·가공품은 '제주일번가'로 중간유통단계 없앤 직소싱으로 입점 확대

제주에서 생산되는 농·축·수산물 등 특산물과 가공품을 중심으로 선보이는 전문 쇼핑몰이 문을 열었다.

(주)제이엘물산은 제주특산품을 취급하는 산지직거래 전문몰인 제주일번가(www.jeju1st.co.kr) 공식

쇼핑몰과 네이버 스토어 제주일번가(smartstore.naver.com/jeju1st)를 동시에 오픈했다고 15일 밝혔다.

제주일번가에서는 현재 제주경제 통상진흥원, 제주바이오기업협회와 협업해 e제주물 상품과 바이오기업

이 만든 제품을 중심으로 선보이고 있다. 앞으로는 제주도 특산물의 중간유통단계를 없앤 직소싱에 주력, 우수한 품질의 특화상품 위주로 선보여 생산자의 판로와 매출 확대 등 상생효과를 모색한다는 구상이다.

현재 쇼핑몰에서는 300여개의 제주특산품을 판매중인데, 앞으로 생산자와 직소싱을 통해 연말까지 1000여개 상품을 입점시킨다는 계획이다. 특히 자체적으로 제품의 품질

기준도 만들어 우수한 제품을 시장에 선보여 소비자들을 공략한다는 전략이다.

안귀환 (주)제이엘물산 회장은 "제주지역의 특산물 생산자들과 협력해 우수한 제품을 직소싱으로 선보여 소비자들에게 제품의 우수성을 각인시키고, 판매 확대로 이어져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문미숙기자 ms@ihalla.com

특별기획 기후변화의 시대, 농업의 길 (1)

기후 위기, 제주농업 기회로...

농업기술원, 기상재해 대응 작물별 안정생산 기술 보급 발작물 기상정보 개발 박차 "정확한 기상분석·전파 심혈"

기후변화로 인해 제주농업의 피해가 예상되고 있다. 작물 재배 지형이 바뀌고 새로운 병충해 등장도 예상된다. 기후변화의 시대를 맞아 위기의 제주농업을 기회로 바꾸기 위한 노력을 3회에 걸쳐 게재한다.

기온 상승 등 기후 패턴이 변하고 있고, 기후변화로 인한 이상기상 발생으로 도내 농업 피해는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따라 농산물 생산·수급 불안정 등으로 인한 농가소득 하락으로 농가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태풍 등으로 인한 도내 피해 면적(북구비)은 지난 2018년 1만6864ha(653억원), 2019년은 1만8795ha(421억원)이다.

이에 제주특별자치도농업기술원은 태풍 등 기상재해의 선제적 대응을 위한 신속한 정보 제공 서비스와 기후변화에 의한 작물 생육상 변화에 따라 작물별 안정생산 기술 보급에 나서고 있다.

기상관측장비(AWS) 운영과 기상청과 연계한 농업기상 정보서비스(기상과 농업의 융합)로 기상재해 분석과 예측, 신속한 대처 및 농작물 관리요령을 전파하고 있다.

지역별로 총 38개소의 자동 농업기상 관측장비를 구축, 정보를 수집·분석하고 ▶제주영농정보 앱 ▶서리(동해) 발생 예측 정보 SMS ▶제주감귤·발작물 지원 전주기 농업기상

정보 서비스를 통해 실시간 관리정보를 제공한다.

특히, 제주감귤 지원 전주기 농업기상정보 서비스는 기상기후정보와 감귤 농사활동을 융합한 서비스로 기상 영향에 크게 좌우되는 감귤 산업을 지원한다. 올해는 제주기상청과 함께 무, 당근 등 주요 발작물 지원 전주기 농업기상정보 서비스를 설계, 개발하고 있다.

'기후변화에 따른 제주지역 주요 작물 생육상 변화조사'로 감귤, 감자 등 9작목에 대한 생육상 변화를 확인하고 기상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안정생산 기술 보급에 나선다.

감자 가을재배의 8-9월 시기별 생육상 변화조사 결과 경장(줄기길이)은 9월 중순경 파종 처리구에서 흑색멸칭, 투명멸칭, 무명멸칭 순으로 길었고 상품수량도 9월 중순경 흑색멸칭 처리구가 가장 많은 것으로 확인됐다. 감자 파종 이후 장마와 태풍으로 초기생육이 매우 불리한 기상환경에서 적정 파종시기 및 재배방법을 구명했다.

최근 월동채소 정식 후 방풍망 피복으로 태풍피해를 경감시키고 있어 피해경감도와 비용분석을 통해 가장 효과적인 방풍망을 선별했다.

양배추의 방풍망 피복시 자재별 특성, 소요경비, 태풍 통과 후 피해정도 등을 분석한 결과 10mm 방풍망으로 태풍 피해를 최소화하며 안정생산이 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다.

도농업기술원 양창희 감귤기술팀장은 "정확한 기상분석 및 전파는 신속한 대처를 가능하게 하고, 작물별 생육상 변화에 따른 관리기술 보급으로 날씨 피해를 최소화하며 안정 생산을 지원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고대로기자 bigroad@ihalla.com

동남아 시장 진출 세미나

광주·전남지방중소벤처기업청은 제주지역 중소기업의 온라인 판로 확보 및 수출성과 창출을 위해 소피코 리아와 함께 7월 2일 '소피 입점 세미나'를 제주경제통상진흥원 회의실에서 개최한다고 15일 밝혔다.

세미나는 '포스트 팬데믹 시대: 동남아시아 시장 진출, 소피에 답이 있다'를 주제로 ▶동남아시아 시장 입지 ▶소피코리아 크로스보더 기업소계 ▶소피 입점방식 및 지원사항 ▶소피 마케팅 활용 순서로 진행될 예정이다. 오프라인 참여는 40명까지 선착순 마감한다.

문미숙기자

국내개발 우수한 [신품종] 감귤묘목 분양

농가 소득에 큰 도움이 될
품질이 우수한 국산 품종

21년 11월 / 22년 3월(분양예약)

- 가온시 10월~11월 수확가능
- 황금향대조품종(껍질이 쉽게 벗겨진다.)
- (FTA)기금 우량 품종 경신사업 (감귤원 원지 정비사업)보조품종

1.3년생 레드향, 한라봉, 천혜향, 황금향, 유라조생, 궁천, 흥진, 카라향, 산화홍(붉은색 감귤)

2-7년생 허굴, 팔사, 세미늘, 금굴, 당유자, 아미나스, 미니몬, 국내산 탕자묘목 판매 (신고번호: 03-0182-2020-3)

제주한라농원은 종자업등록 국립종자원 품종공고 농촌진흥청 통상실시 계약자로 생산, 증식하여 공식판매하는 종묘업체입니다.

제주한라농원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성산읍 서성일로 991번길 1
종자업등록번호 제18-2017-20-02호
010-6500-2329

감귤 신품종 분양
2021년 봄 출하예정 묘목 분양

만감류 레드향(무독), 천혜향, 황금향, 원터프린스, 제라몬(레몬), 미니향, 한라봉, 탐나는봉, 시라향, 아미나스

조생 유라조생, 하례조생, 궁천 (2년생 이상 100% 이식한 묘목임)

농장위치
서귀포시 안덕면 서광리 850-6번지 (평화로 서광주유소에서 모슬포 방향 300M 위치)

종자업등록번호 : 18-2003-20-09
자원종묘
010-2691-1883

21세기 농업은 미생물 농법으로

가이아바이오 토양 미생물제재 부스트 팜 ⇒ 탄생

사용방법

- 20ℓ(1말)을 100배(100말)희석 1,000평 관주
- 수돗물을 사용시는 하루 지나서 희석

사용효과

- 질병 예방(세균성, 곰팡이성)
- 토양 이끼 제거
- 당도 · 과중 증가, 저장성 증대
- 기형과 감소로 인한 수확량 증대
- 토양을 기름지고 숨쉬는 육토로 바꿈

사용시기

- 거름(퇴비)을 시비한 후 관주
- 영양 생장 · 비대기때 관주
- 엽면시비는 200배로 희석 사용

본 제품을 시제품으로 사용할 농가께서는 연락을 주십시오
010-2633-5349 부영인
공탱이 감귤 유통상사
(주)포트라 제주지사 제주지사장 부 영 인 H·P 010-2633-5349